

감사 달

믿음성장과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가 한 기도  
 나는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속여 품고만 잊어도  
 이루어주신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왕상 9:3

#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November 6,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누가복음 8:1-3 <b>“가진 것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자.”</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595장 - 나 말은 본분은 (결단의 기도) <small>(통일찬송가 372장)</small>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오정은 집사, 유덕하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small>(통일찬송가 348장)</small>
삶과 세상으로	* 찬 양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호세아 2:1-7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 우상숭배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지 못한 믿음** / 누가복음 7:1-10

이방인 백부장은 생사의 위기에 처한 하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께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이 가진 권세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 예수님을 세심히 배려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인에 불과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직접 만날 자격이나 예수님의 방문을 받을 수준이 못 된다고 고백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확신하는 믿음, 명령만 하셔도 하인의 병은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다.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을 바라나, 결코 그것은 허공에 세워지지 않는다. 이 백부장은 배타적인 유대인들조차 칭찬을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사람 됨됨이도 그와 같아야 한다. 인격이 인격이 성숙해지는 만큼 믿음도 성장하며, 믿음이 견고해지는 만큼 사람 됨됨이도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조화가 이뤄질 때 이웃에게 감동,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릴 수 있다.

### 가진 것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자 / 누가복음 8:1-3

#### 1. 자신이 가진 것으로

---

---

---

#### 2. 기쁨과 자원함으로

---

---

---

#### 3. 끝까지 섬기는 헌신

---

---

---

#### 4. 부활과 영생의 증인

---

---

---

---

---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선용하여 감사와 자원함으로 섬기자.

### 가진 것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자 / 누가복음 8:1-3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으로 천국복음을 전할 때,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랐다.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여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졌다.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다. 귀신을 쫓아 내셨거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후원했다. 제자들은 구제와 사역, 모여드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관리했다. 여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은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유했더라도 여인들의 재정 후원에는 분명 많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유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한다. 이 여인들도 그랬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아끼지 않고 자원하여 드렸다. 마음과 물질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이 여인들의 섬김이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유종의 미이다. 예수님을 섬기되 끝까지 섬겼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다시 언급한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형을 집행하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향품을 준비해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 결과 이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다. 즉,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리를 지킨 것이다. 끝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겨야 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아끼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한다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

요한복음 10:40-42

다시 요단 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1.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도 있었다.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퍼던 곳으로 가셨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마을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신뢰가 컸다. 그 삶이 진실했기 때문이다.

2. 본문에 따르면,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세례 요한에게는 없었다.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고 세례 요한을 좇았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신뢰가 참 높았다.

3. 그런 세례 요한이 있던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 말씀 뒤로 '그리하여'란 접속사로 다음 문장과 이어져 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4. '그리하여'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참이라 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다.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은 잘 몰랐던 모양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말했다면, 세례 요한의 말은 참이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5. 나는 이 말씀 읽을 때 소름이 끼쳤다. 교인들도 다 사람이니까 불안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 가나안 성도(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들이 꽤 많지 않나.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단다.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냐"라는 이야기다. 맞다.

그런데 나는 그 말에 그리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도 보지 못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믿겠는가.

선교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조이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저 사람, 저 목사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틀림없어.”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6.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닌가.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닌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다.**

7. 요즘 한국의 기독교가 참 위험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보기엔 정상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도 않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 교회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같아 보인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일이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 비참하고 후회스러운 것이다.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주께로, 주의 몸 된 교회로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8.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아마도 아주 길지는 않을 것이다. 꼭 암에 걸려서가 아니라 이제 살아온 날이 훨씬 길고 남은 날은 짧다는 건 정해져 있는 이치다. 짧으니까,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지난 70년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몇 년이 나한테 훨씬 더 귀한 삶이다.

9.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있다. **잘 살아야지. 헛된 생각 버리고 살아야지. 욕심 때문에 바보짓 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잘살아 봐야지.

예쁘게 아름답게 살아서 사람들이 '아, 내가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김동호 목사 말은 맞아. 김동호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 한 말이 맞아.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이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시간이 혹 짧다고 해도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는가.

10. 세례 요한. 정말 부럽다. 세례 요한이 한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에 도리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사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 예수님 식대로 살기, 김동호 -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주께로, 주의 몸 된 교회로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